

〈권두언〉

이 번호에는 2005년 춘계학술 대회의 기초강연 내용을 권두언으로 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대신 포스트모던시대의 상대성이 이 사회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식의 정보화로 인한 지식의 풍요속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물질지상주의 속에 인격이
파괴되어가는 현실에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기독교 학문연구회 주최로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라는 주제로 기독교 교육의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찾는 의미있는 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본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4편의 세부 주제별 발표내용은 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

김성수(기학연 부소장,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고신대 교육대학원 원장)

교사가 모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그 모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의 한 중요한 과정이다. 동양에서 교육의 어원적 의미는 “상소시 하소효”(上所施 下所效), 즉 ‘위에 사람은 모범을 보이고 아래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구안되고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교육적 모범이 없으면 교육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은 사물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또는 성경적 관점(perspective)을 많이 강조해 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교육을 위해서 수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까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접근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에들린(Richard Edlin)에 의하면 사물에 대한 인지적 관점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의 근저에는 ‘사상은 결과를 갖는다’(Ideas have consequences)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데 관점이 반드시 실천적 삶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터스톨프(Nicholas Wolterstorff)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월터스톨프는 경향성 학습(tendency learning)을 강조한다. 경향성 학습이란 “학습이나 훈련 과정의 결과로 학습자편의 어떤 경향성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학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습자편의 어떤 경향성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모델링(modeling)이라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아동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

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 경향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공격적인 행동 또는 이타적인 행동 등도 모두 그러한 행동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과업에 대한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 과업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에들린은 다음과 같이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역할 모델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종종 무의식적인 교사의 행동과 태도가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재현되는 행동양식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이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 거짓말, 성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경쟁 대 협동,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등과 같은 도덕적 논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방식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세계관에 통합시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실행하게 될 역할모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4, p.168)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 (FIRE)을 가지고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의 자유’ (my Freedom), ‘나의 개인주의’ (my Individualism), ‘나의 권리’ (my Rights), 그리고 ‘나의 평등’ (my Equality)가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세계도 아동이 자신들의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는 구성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 진리를 부인하며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는 포스터모던 사회에서 기독교교육은 모델링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진리 자체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완전한 교사다. 예수님은 교육목적을 인식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그리고 학습자의 필요와 동기와 모든 내면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완전한 역할모델이 되심을 보여주셨다. 비유법과 실물교수법, 질문법, 시청각적 방법의 활용 등 예수님은 현대교육이 발전시킨 모든 교육방법과 평가방법, 그리고 기술들을 현대교육자들이 논구하기 이전에 이미 자유자재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 사랑의 실천, 섬김과 봉사, 겸손, 연약함의 체휼 등 교사로서의 완벽한 자질을 구비하셨고 이와 같은 자질들을 스스로 실천해 보여주셨다.

이런 점에서 교사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성경 문자주의(Biblicism)의 함정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님의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소위 성경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져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경 문자주의의 오류란 그레이다너스(Sidney Greidanus)가 말한바와 같이 성경의 다양한 장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가르치려는 것’ (teach)과 그것을 가

르치기 위해서 인식의 틀을 ‘반영하는 것’ (reflect)을 구별하지 못할 때 빠져들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겨자씨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라고 언급할 때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식물학자들에게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 문자주의의 오류는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G. Hendricks)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헨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신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growing)은 예수님조차도 하셨던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복음 2:52은 주님의 생애 동안의 성장과정을 설명한다. ‘예수는 ... 자라가며’ 여기서는 성장의 네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주님은 ‘지혜가 자랐다. 그것은 지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키’가 자랐다. 즉 신체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자랐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자랐다. 즉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을 가리킨다.” (Howard G.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27)

이상의 인용에서 헨드릭스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성경 저자가 예수님의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정서적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신의 관점에서 지나친 범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범주화는 인간학적인 관점에서나 전인적 교육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성경 문자주의적인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대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 부자연스러움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라는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빠져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함정은 현대교육의 관점에서 현대교육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교육이론’ (?)과 교육 실재를 설명하거나 미화시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육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대교육의 이론을 실천하거나 현대교육의 방법을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실천해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셨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교육실재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완전한 교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 다이크(Van Dyk)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교육방법이 학습자에게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완전하신 교사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항상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교사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반 다이크의 다음 글을 음미해 보자: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보자. 예수님도 아주 비효과적인 때가 있었다. 복음서는 종종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부활의 예언과 같은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란이나 완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Van Dyk,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2004, p.49).

그럼으로 우리는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고찰할 때 현대교육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교사되신 예수님을 설명해 가려는 접근 보다는 모델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이 갖는 현대적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 다이크의 다음 글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 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이것은 우리가 칠판과 OHP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읽기를 어떻게 가르치실까? 발음중심의 어학 교수법을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 언어 교수법(whole-language approach)을 사용하실 것인가? 수학을 가르치실 때 항상 실물을 이용해서 가르치실까? 평가와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교수 방법을 실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해석과 사색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그의 실제 교수 방법은 불확실한 구름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은 교수방법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대답들은 사실상 이미 우리의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편견과 견해의 보따리를 반영해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하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도록 만들기가 쉽다. (Van Dyk, 가르침은 예술이다. p. 50)

3. 성경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

교육의 모델되신 예수라는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빠져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대한 오류는 성경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이 마치 개별 학문의 교과서(text)인 것처럼 접근하는 오류이다. 성경은 결코 교육학 개론서가 아니면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와도 같다. 바톨로메(Craig G. Bartholomew)와 고힌(Michael W. Goheen)에 의하면 성경은 6막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마와도 같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포괄적인 주제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제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다: 창조

제2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난 반역: 타락

제3막: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구속의 시작

제1장: 왕을 위한 백성들

제2장: 자기 백성을 위한 땅

중간시기

제4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제5막: 왕의 소식을 전파: 교회의 사명

제1장: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제2장: 땅끝까지

제6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6막 4장의 구조와